

BYD, ‘가성비 괴물’ 아토3 출격… 韓 전기차 가격전쟁 ‘점화’

사전계약 한달 만에 2000대 돌파
유럽 5800만원, 韓 2000만원대
LFP 배터리 장착해 안전성 확보
현대·기아보다 저렴한 전기 SUV
“동급 성능에 가격 절반” 평가도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국내 첫 출시 모델 ‘아토3(ATTO 3)’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가격은 물론 가격 대비 성능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얼마나 선전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BYD가 한국 시장에 처음 내놓은 소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아토3가 지난 14일부터 고객 출고를 시작했다. 지난 1월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이다. 아토3는 BYD의 기술이 집약된 블레이드 배터리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Platform 3.0을 적용해 탁월한 안전성, 공간 활용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시 1주일 만에 사전계약 1000대, 한 달 만에 2000대를 받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



조인철 BYD KOREA 승용부문 대표가 차량들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몸에 받았다.

아토3의 가장 큰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가성비)이다. 아토3는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권장소비자가격은 아토3 3150만원, 아토3 플러스 3330만원으로 지자체 보조금(145만원)까지 더하면 2000만원대 후반에 구매가 가능하다.

국내 경쟁 소형 전기차인 기아 니로 EV(4200만원), 현대 코나EV(3500만

원), 현대 캐스퍼EV(3100만원)가 3000만원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아토3는 BYD가 자체 제조하는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이름의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LFP 배터리는 양극재로 리튬 인산철을 사용하는 배터리로 저렴한 가격과 긴 배터리 수명이 장점이며, 350도 이상 고온에서도 폭발하지 않을 만큼 안전성이 우수하다. 니

로EV와 코나EV의 경우 NCM배터리가 탑재되어 순간적인 출력이 강한지만 비싼 배터리 가격과 발화 위험성이 비교적 높다.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와 출력의 경우 아토3는 321km, 150kW(204마력)로 니로EV 404km 50kW(204마력), 코나EV 311km 99kW(135마력)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니로EV와 가격이 1000만원이 차이가 나지만 주행

거리가 80km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또한 차량 크기도 동급 국산차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아토3는 지난 2022년 출시 이후 가성비로 호평받으면서 중국 외에도 일본과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72개국에서 100만대 이상 팔렸다. 유럽 판매 가격은 4만유로(약 5800만원), 일본 판매 가격이 440만엔(약 41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 판매 가격은 매우 저렴하다.

시장에서는 아토3가 본격적으로 출고를 시작한 만큼 국내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아토3가 국내 동급 경쟁모델과 가격 차이가 비슷하면 소비자들이 아토3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만 저렴한 가격 대비 자동차 성능은 국내 전기차와 별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며 “아토3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만큼 아토3를 시작으로 후속모델 출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오영주 “韓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총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美서 글로벌펀드 결성·MOU 체결
“매년 1조 펀드로 해외 투자 유치”
UKF 연계, 현지창업 네트워크 활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해 광복 행보를 펼치고 있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중인 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 ▲UKF-한국벤처투자업무협약(MOU) 체결식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 잇따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이상 조성해 글로벌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한인창업자연합(UKF) 등 해외 네트워크에 우리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성한 3개 글로벌펀드 규모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결성식 및 MOU 체결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중기부

총 2억 달러(한화 약 2854억원)로, 이중 최소 3000만 달러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결성식에 참여한 미국 벤처캐피털은 패턴 매니지먼트(Patron Management), 써드프라임 캐피탈(Third Prime Capital), ACVC 파트너스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딥테크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중견 투자사다.

브라이언 조 패턴 매니지먼트 대표

는 “한국 스타트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이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스타트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전세계 15개 벤처캐피털을 선정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1500억원을 출자했다. 글로벌펀드는 지난 2월 기준 총 73개 펀드, 약 12조원 이상 조성해 642개 한국기업에 1조3000억원 이상 투자했다.

글로벌펀드 결성식 이후에는 UKF와 한국벤처투자가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UKF는 지난해 8월에 재미 한국계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약 1500명의 회원이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실리콘밸리, 하반기 뉴욕에서 ‘UKF 82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해 한국기업과 현지 한국계 투자자, 기업인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휴넷CEO, ‘대한민국 10대 혁신기업’ 선정

한화에어로·현대차그룹 등 포함
코스피 등 2273곳 분석해 선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성공은 김동관 부회장이 기술적 통찰력, 조직 통합 능력, 시장 전략을 실행력으로 융합한 결과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은 정의선 회장이 기술, 조직, 시장을 심층 통합하며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재정의했기 때문이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은 박진영 COO가 기술 리더십, 조직 유연성, 시장 전략을 실행력으로 융합한 결과다.”

휴넷이 경영자 씽크탱크 서비스 ‘휴넷CEO’를 통해 16일 발간한 ‘CEO 리

포트’ 4월호에 담긴 내용이다.

휴넷리더십센터와 한국기업가정신기술원이 공동 기획한 이번 리포트는 ‘대한민국 혁신기업 Top 10-혁신 패권 시대, 새로 쓰는 혁신 리더십’을 주제로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혁신 리더십의 본질과 방향성을 집중 조명했다.

리포트는 KOSPI, KOSDAQ, KONEX에 상장한 227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혁신성 지수 모델을 활용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각 기업의 혁신 사례를 분석했다.

10개 기업에는 이들 외에도 ▲SK하이닉스 ▲효성중공업 ▲삼양식품 ▲실리콘트 ▲제룡전기 ▲클래시스 ▲파마리서치가 이름을 올렸다. /김승호 기자

현대제철, 원자력용 강재로 해외시장 공략

美 ASME서 QSC 품질인증 획득

현대제철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원자력소재 품질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원자력용 강재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사 최초로 미국 기계기술자협회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로부터 원자력소재 공급사 품질시스템 인증인 QSC(Quality System Certificate for Nuclear Material Organization)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ASME QSC’는 원자력 발전소 및 관련 산업에서 사용되는 재료와 부품의 품질보증체계를 평가하는 세계적인 인증제도로 ASME는 공급사의 소재 및 품질관리시스템이 원자력 산업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엄격하게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현대제철의 철근·형강 및 후판이 글로벌 원자력 산업의 까다로운 품질 요구 수준에 충족한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원전(原電) 건설 및 유지보수용

강재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제철 브랜드의 인지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대제철은 이번 인증과 함께 그동안 축적해온 원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원자력 관련 수요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2006년도부터 국내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국내 주요 원전 건설에 제품을 공급해왔고 2011년에는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공급 실적도 확보했다.

/이승용 기자

상해모터쇼서 사운드 데모카 등 공개

현대모비스가 23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오토상하이 2025’에서 현지 시장에 특화된 신기술을 선보인다. 지난해 북경모터쇼에 이어 중국 양대 모터쇼로 꼽히는 상해모터쇼에도 부스를 마련해 고객사와의 접점을 늘려 글로벌 수주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중국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열리는 상하이모터쇼에서 90평 규모의 부스를 차린다고 16일 밝혔다.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품 전시를 확대해 올해 2억 달러(2860억원)의 현지 수주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스는 현지 완성차업체와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만 운영된다.

현대모비스는 현지 특화 신기술 2종과 선행 제품들을 중심으로 고객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 상하이 연구소는 부품 설계와 함께 차세대 플랫폼 등 선행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엔타이 연구소는 현지에서 출시하는 신규 차종 개발과 양산 업무를 맡고 있다.

현지 특화 기술들은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와 사운드 데모카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70인치 규모의 고해상도 가상 이미지를 차량 앞 유리창에 띄워 주행 정보를 표시한다. 뛰어난 밝기와 명암비로 햇빛 아래나 선글라스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EV6 기반으로 제작한 사운드 데모카는 47개의 스피커를 장착해 극장 수준의 사운드를 재현했다. /양성운 기자 ysw@